

# 축사 온·습도 시시각각 체크... 눈 땀 틈 없는 '폭염과의 전쟁'

## ■ 르포 ■

### 폭염 시름 무안 양계농가 가보니

이른 아침부터 더위 대비 총력전 환풍기 켜고 영양제 주고 '예의주식' 고물가에 출하해도 남는 게 없어 경영난에 역대급 폭염까지 이중고 정부 차원 시설 현대화 지원 시급

"자칫하면 닭 수백 마리가 한 번에 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도 눈을 땄 수가 없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전남 지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역대급 폭염까지 덮쳐 폐사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30일 찾은 무안군 망운면의 한 양계농가는 이른 아침부터 더위에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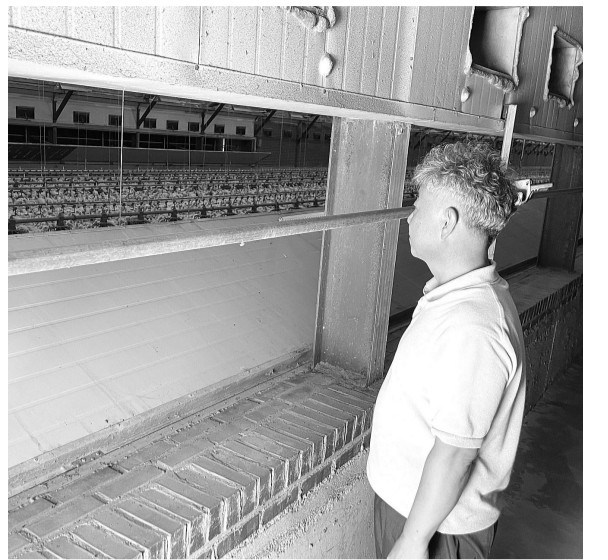
양계장 주인인 김화실(59) 씨는 평소보다 1~2시간 이른 새벽 5시 반부터 양계축사를 둘러 온·습도 계부터 확인했다.

사료를 주면서도 닭들이 더위에 버틸 수 있도록 물에 영양제와 대사촉진제 등을 첨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8시께



30일 낮 최고기온이 32.4도까지 치솟은 무안군의 한 양계농장의 축사에서 농장주인 김화실씨(오른쪽)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수만마리의 닭을 바라보고 있다.



일을 마치고도 김씨는 양계축사 안을 보여주는 CCTV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닭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김 씨는 "닭에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호흡으로 온도를 조절하는데, 덥고 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결국 과호흡으로 폐사할 수 있다"면서 "한마리가 죽으면 우후죽순 수백마리가 폐사하는 건 한순간이라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안군에는 지난 24일부터 8일 넘게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 또한 낮 최고기온은 32.4도까지 치솟았다.

육계가 성장하기에는 양계축사 내부 온도 26도, 습도 50%가 적합하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김씨의 축사는 환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온도 30도, 습도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김씨는 "차라리 비가 내려 지열을 식혀주면 나을 텐데, 최근엔 소나기만 잠깐 내리면서 습도만 높아지고 있다. 덥고 습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20년 가까이 닭을 키우고 있지만 유난히 혹독한 여름이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0일까지 전남 13개 시·군 46개 농가에서 총 2만 9322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별로는 닭 2만 7968마리, 돼지 821마리, 오리 533마리 등이 폐사했으며 총 피해액은 3억 6200만원에 달한다. 30일 하루에만 닭 2608마리, 돼지 262마리, 오리 261마리가 폭염을 이기지 못해 폐사했다.

농장주들은 "실제 피해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남도의 통계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사의 피해 신고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

이다. 더구나 가축 폐사 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최소 200만원 이상 내야 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탓에 보험금을 포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높은 물가 탓에 출하 시 순이익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료와 가스비는 물론 사료값과 약값,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5년 전까지 4.5t 트럭 한 대당 30여만원이던 왕겨 가격이 최근 60~80만 원까지 올랐다"며 "옥수수, 밀 등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도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농장주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총 매출에서 순이익이 60~70%는 됐는데 최근엔 5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진(79) 한국오리협회 무안군지부장 역시 "난방비 부담에 겨울에 휴지기를 갖는 농가도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한 폐사까지 발생하니 농가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탄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미 개인 농가의 노력으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시설 현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해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로 발송하는 한편,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79억원을 투입해 축사 지붕에 열차단재를 도포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글·사진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유심 판매 20대 구속

불법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을 유통한 2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브

로커를 통해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유심칩 203개를 외국인 명의로 불법 개통해 개당 3만 5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시 별정통신사(기간통신사 외 알명 '알뜰폰'으로 통신사업체)를 통하면 가입이 쉽다는 점을 악

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폰을 추적하다가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대리점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남긴 지문을 확보하고 한달여간 추적 끝에 지난 26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범행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 "피의자에 욕설·CCTV 조작 경찰, 인권 침해"

### 인권위, 광주경찰 직무교육 권고

광주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을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활용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또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해 있음에도 욕설 등을 하며 피의자를 억박지르는 것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광주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차친구에 대한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가족은 "지난 2018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폭언과 욕설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발생현장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들은 "범행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를 타이르는 정도였

고, 그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청에 보낸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술 음성 녹음을 살펴보면 타이르는 정도가 아닌 높은 수준의 욕설과 폭언이 수차례 지속했고 변호사가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CCTV 영상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화해 개인 정보를 침해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원본 영상은 클러졌지만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영상은 흑백이었다는 점에서 영상의 색을 전환해 사건현장을 확인(주차선의 색, 전조 등 불빛으로 인한 번짐 현상)하기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감압수사, 변호인 무시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경찰이 내부 경고조치로 사안을 종결했다"면서 "비록 시간이 다소 경과 했더라도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

## 학동 재개발 수사 위조증거 낸 조합직원 벌금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비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조증거를 제출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0대 여성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증거 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외 벌금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동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인

한 조합장 B씨 등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2018년 학동 3구역의 '보류지'(保留地)를 행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B씨 등은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이다.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

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장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했다.

A씨는 "공고문을 위조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3년 전에 한 일이고, 이조차도 정비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보류지 무상 처분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공고문을 수정하고, 불법 행위를 숨기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